■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이주헌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16일 열린 '현대미술 인문학' 강좌에서 이주헌씨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감각 훈련을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창의력은 행복의 원동력 감각 훈련통해 길러야죠"

"인간에게 창조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이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많은 행복을 누립니다. 창조성, 창조충동이야말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강의실에서 열린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에서 미술평론가 이주헌(49)씨는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며 창의력이 인간 행복의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좌에 초청된 이씨는 '지식의 미술관' '이주헌의 아트카페' 등 미술관련 서적과 강연을 통해 미술 대중화를 이끈 인물로 학고재, 아트스페이스 서울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양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인간 눈의 한계(착시나 착상 등)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씨는 "인간이 가진 이러한 한계는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상상은 창의력을 자극하여 예술이 되고, 창조의 과정이 주는 정서적 충족감은 예술가나 이를 즐기는 이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선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피카소, 백남준, 마크 퀸, 피에로 만조니, 김재홍 등 창의력을 발현한 예술가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보여 주며 창의력과 행복, 몰입, 파괴 등 창의력이 이루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몰입하는 사람이 발견한다'라는 피터 드레커의 말을 인용하며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고 정의했다.

또한 이씨는 예술세계에 있어 창의력은 '직관의 끈으로 지식의 구슬을 꿸 때 작동한다'고 전제하고 "창조행위는 순간적인 상황판단을 하거나 회상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때 이미지 사유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외로 엉뚱한 발상이나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할 때 창조적인 예술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창조를 위한 '파괴'(전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씨는 "안정된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지만, 최소한 이 모험을 하지 않고는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술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자산은 모험심과 용기, 곧 창의력이다"고 강조하고 "창의력이 충만한 예술가들은 모두 블루오션을 향해 나아가는 대항해자들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감각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고 듣는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 극도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좌에는 상록전시관 초대전 '불휘기픈전' 관람객과 학부모, 시민 등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강의가 끝난 뒤 이씨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강좌는 내달 20일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분관장이 강사로 나와 '화이트큐빅의 종말과 포스트모던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062-613-538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풍경·곤충 … 한국화 화단에 큰 발자국

■ 타계한 정산 윤애근 화백

올 전시회 앞두고 왕성한 작품활동

지난 2009년 2월, 정산 화실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생전 윤애근 화백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한국화 화단의 큰별이 졌다. 17일 타계한 고(故) 윤애근 화백은 종이를 여러겹 붙인 겹장지로 화폭을 구성하는 독특한 작업으로 주목받은 작가다.

윤화백이 호남 화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0년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1996년 담양의 낡은 외양간의 바람벽을 허물고, 숙식과 창작이 가능한 지금의 '정산화실'을 지었다. 정산(晶山)은 맑은 산빛을 좋아하는 그녀의 호다.

이곳에서 윤화백은 한지의 일종인 장지를 30~60장 붙이는 '접장법'을 이용, 두터운 화폭에 사물을 부각시킨 새로운 조형법을 완성시키며 예술혼을 불태웠다.

초기 인물과 풍경 중심의 평면 작업에 집중했던 윤화백은 나비, 무당벌레, 배추벌레, 장수하늘소 등 곤충을 소재로 한 입체 작업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보였다. 윤화백이 표현하는 곤충의 더듬이는 다름 아닌 정신이다. 더듬이가 떨어진 채 방향을 가늠하지 못해 뒤뚱거리는 곤충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불안한 일상을 찾아낸 것이다.

후학을 지도하다 보니 작업 시간이 늘 부족했던 윤화백은 지난해 정년퇴임한 후 정산화실에 머물며 '제2의 예술 인생'을 펼쳐나갔다. 특히 올해 식영정, 소쇄원 등 담양 지역 풍경을 하나하나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 계획으로 어느 때보다 몰두하며 작품 활동을 했던 터라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은 지역화단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윤화백은 지난 2006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기념 화집인 '정산 윤애근 화집'을 발간, 2006년까지 작품활동을 갈무리했다. 이 화집에는 초기 문인화 시절을 거쳐 현재 겹장지 작업까지 작품 세계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역작 100여점을 수록했으며 후학들을 위해 겹장지 분채 작품의 제작 전 과정의 노하우를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 해설했다.

또 정년을 한 해 앞둔 지난 2007년에는 프랑스 '씨떼 데 자르'(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현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젊은 작가 못지 않은 활동을 펼쳤다.

당시 그녀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장들이 자신의 작업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작가는 이미 죽은 작가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예술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금 송선명씨 열린국악한마당 공연

22일 국악전수관 천년만세 등 연주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대금연주자 송선명씨를 초청했다. 22일 오후 7시 국악전수관 공연장.

송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정통 국악곡들 들려준다. '천년만세'는 대금과 양금, 2주중형태로 연주되며 '청성곡'도 선사한다. 또 제자들과 합주형식으로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들려주며 서용석류 대금산조도 레퍼토리다.

송씨는 전남대국악과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국악과 겸임교수, KBS예술대학 강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씨와 함께 광주시립국악단원으로 활동하는 김한아(양금)씨와 이왕재(장단)씨가 함께 출여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트광주' 작가 모집

광주비엔날레 재단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광주국제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조직위원장 이용우)의 특별전인 '광주청년작가'전에 참여할 젊은 작가들을 모집한다.

'청년작가'전은 광주·전남에 연고가 있는 만 30~40세의 역량 있는 작가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아트광주' 사무국에 본인의 최근 작품세계를 수록한 포트폴리오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아트광주'는 일반 아트페어와 달리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포괄하는 차별성을 내걸고 광주비엔날레의 개막과 연계해 열린다. 올 행사는 오는 9월1일~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 문의 062-611-300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